

# 목포 대양산단 미분양 문제 다시 협의기로

### 감사원, 산단조성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권고따라 시, 이사회 소집 요청...주주사들과 분양 책임 등 모색

목포시 대양동 일대 156만㎡ 부지에 2909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양산단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일)는 지난 25일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양산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만 위함을 부담하는 사업구조는 부적절하다"며 "대양산단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감사원 통보가 감사에 따른 부담 업무처리 지체이나 시정조치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산단 조성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시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출자자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 건설 등 주주회사들과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민간 참여업체의 분양책

임 부담을 검토했으나 분양 예정가 상승 등을 고려해 목포시가 책임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시공참여업체가 분양 책임을 분담할 경우 공사 도급률, 사업비 총당을 위한 차입자금의 이자율이 상승하고 분양수수료 역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현재 88만6000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는 감사원과 시의회의 권고대로

시공업체와 책임분양 방안을 제철의 하지만 분양책임 분담 대가로 도급대가 인상 등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대양산단은 조선 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기간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분양될 경우를 미리 걱정하는 여론분열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



## 영광 황금돼지 '보리올 포크' 출시

### 郡 자체 개발 브랜드... "육질 부드럽고 담백" 평가

영광군이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브랜드 '보리올 포크'를 최근 출시했다. 군은 26일 "지난 22일(사)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와 함께 5년여의 기간 동안 종돈·사료통일, 사양관리 등 품질 균일화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황금돼지 종돈(YBD) '보리올 포크' 브랜드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리올 포크'는 영광군과 영광한돈농가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군비 6억원을 투입, 요크셔종 암컷 등 돼지들을 교잡한 것으로, 보리산업 특구지

역인 영광군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를 사료로 먹은 고품질 명품 돼지고기 브랜드다.

군은 보리올 포크 출시에 앞서 농가 적응시험, 시식행사를 가졌으며,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하는 것은 물론 냄새가 적고 마블링이 좋으며, 특히 육질이 부드러워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리를 포크를 먹을 수 있도록 마트와 판매장 유통망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신안군, 세계 공예품 150여점 기증 받아

### 오지현씨 소장품 전시 계획

신안군은 26일 "지난 25일 영암군 군서면 오지현씨로부터 개인이 소장한 세계 공예품 15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인 오지현씨는 지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가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뒤 동생과 함께 세계각국을 여행하면서 공예품을 수집해왔다.

기증품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목각전신상, 목각 그릇류, 입체탈, 카메라, 고가구, 의자, 탁자 등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문화 예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오씨는 "그동안 수집



한 공예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군은 오씨의 기증품을 단일 공간에 전시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자원봉사자들이 26일 지역 내 독거노인의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연탄보일러 교체, 보온단열재 수리, 연탄 지원 등이 시급한 605개 가구를 발굴해 1억5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목포시 제공)

## 목포항만청, 해역이용협의제 운영 대비 설명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6일 "최근 해역이용의 변화 추세에 맞게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내 10개 시·군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으로 오는 2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해역 이용은 단순한 어업시

설, 농지간척 등으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해양레저, 해양관광단지, 해양친수공원 조성, 해양에너지 개발 등 그 범위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목포항만청의 분석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전북

# 순창군 말산업 본격 육성 나서

### 전주 기전대학교 업무협약...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지원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이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26일 "지난 25일 순창군수실에서 황숙주 군수와 서정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기전대학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학생 승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기전대에서는 순창지역 내 장애

인을 위한 재활승마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순창군 공공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중인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해 팔덕이 착상된 가운데 전주 기전대학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말산업의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전대학교 마사과는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선식 교육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마필을 이용한 장애우의 재활승마 프로그램, 개인 승마장이나 재활승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말관련 인재를 다수 배출하는 등 말산업 관련 선도학교로 알려져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선운산 풍천장어거리' 국비 4억 지원

### 농림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최종 선정

고창군은 26일 "지난 8월 전라북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된 '고창선운산풍천장어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서 선정되면서 2년간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군은 '고창선운산풍천장어거리'에 대해 시설·환경개선, 경영 및 서비스 향상, 우수식재료 소비 촉진, 공동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9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외식산업 진흥법' 등에 근거한 것으

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해 해당지구의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해나가는 제도다.

'고창선운산풍천장어 우수외식업지구'는 외식업체 비율, 매출액 규모, 외식산업관련 자격증 소지비율, 모범업소 지정비율, 우수식재료 사용비율 등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인근 선운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고창의 자연·문화·관광자원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가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음청영기자 cy0370@

## 정읍시, 저소득층 7235세대 조사

### 겨울철 난방유 지원 등 대책 마련

정읍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26일 "최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들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 7235세대를 직접 방문해 난방시설 및 생활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통해 연료부족 208세대, 난방시설 미가동 22세대, 취사불능 1세대, 전기·상하수도 중단 5세대, 집수리 82세대, 긴급구호 9세대, 기타 51세대 등 314세대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314세대)에 한국에너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지가를 통해 난방유를 지원했고 긴급복지생계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특별생계비지원 등을 연계 지원했다.

또 주거시설이 불편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지원으로 동절기 불안감을 덜어줬다.

또 터미널 인근 노숙인들에게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장기노숙자는 인근 시군의 노숙인 시설과 부랑인 시설로 이송 조치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이 다음달 20일까지 김장철 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김장 후 남은 채소쓰레기를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또는 파란색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마이스터고 3곳 평균 입학경쟁률 2.2대 1

전북지역 마이스터고 3곳의 평균 입학 경쟁률이 2.2대 1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등 도내 3곳의 마이스터고가 2014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20명 모집에 1144명이 지원,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 한국경마축산고는 내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한다. 자율형 사립고 중 전주 상산고는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각각 1.09대 1과 0.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시 짚풀공예 200여점 전시회

남원시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남원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3 남원시 짚풀공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전국 규모 짚풀공예 대전에서 30여차례 입상한 바 있는 산동면 부절리 마을 노인회의 짚풀공예팀이 주축이 돼 20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시는 전시회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전통공예를 전승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시장에서 직접 짚풀공예 작품 제작과정도 시연한다. 관람료는 없으며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올해 일정 마무리

전주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욕구 충족을 위해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6일 제16회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전주시 열린시민강좌에는 모두 16회 강연에 8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16회에

단 한번도 빠지고 않고 참석해 21명과 12회 이상 참석한 84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한편 제15회 강연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시민강좌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6명으로부터 10점 만점에 평균 9.2점을 얻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경찰 보안위 개칭...탈북주민 정착지원 논의

정읍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26일 오후 보안협력위원회 권순태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정읍지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에 대한 소개와 향후 정착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읍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권순태 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대별 한가족 결연 등을 통해 위문품 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정착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